

01 교회소식

사랑의 2016년!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권능으로 달려온 2016년, 올 한 해도 값없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오직 감사뿐입니다."

02 생명의 말씀

잊지 못할 은혜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날을 주셨다.

03 송년 특집

함께 갑시다, 새 예루살렘까지~

올해도 우리 교회는 방송과 책자, 손수건 집회와 WCDN의 사역 등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04 송년 특집

"재창조의 권능으로 행복했습니다"

2016년, 기운도 조절되는 재창조의 권능으로 치유는 물론, 근본까지 변화되어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으로 충만했다.

만민뉴스

제769호 2016년 12월 2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지난 12월 16일 저녁 9시 50분, 교회 야외에서 GCN방송으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성탄 점등식이 있었다. 교회 마당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성도가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본체 1층과 2층 사이!"를 외친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함께 가요!"라고 하자 성탄 장식에 형형색색 아름답게 빛이 수놓아지며 어둠을 밝혔다. 이어진 예능위원회 천상의소리선교단 소속 석진경, 김정은 자매의 특송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일기 예보가 기온이 영하 9~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여 기도했는데, 지금 이곳은 정확히 영상 1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기온을 조절해 주셨고 앞으로는 더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킴받고 축복받을 수 있으며,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져도 하나님 공간 안에서 멋있는 2017년이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12월 23일 금요일아예배 2부에는 성탄 전야행사로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주관 뮤지컬 판타지아 「러브」가 공연되었다. 190여 명의 출연진의 열정적인 노래와 절제된 무용 퍼포먼스가 라이브로 진행되었으며, '탄생의 고백', '사랑', '권능으로 이루신 사역', '눈물', '사랑합니다 만민의 양 떼여' 등 새로운 만민찬양으로 감동을 더했다.

성탄절인 12월 25일 주일 대예배는 성탄 축하예배로 드리며, 12월 31일(토)에는 2016-2017 송구영신예배가 예년과 달리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진행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이끄신 2016년

급속한 온 영의 흐름 속에 힘 없이 달려온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며 만민뉴스에서 12대 뉴스를 선정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1 온 영의 흐름 가운데 멋진 사랑과 희생의 열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크신 섭리 가운데 2010년부터 급속한 영의 흐름을 허락하시며 성도들이 신속히 죄악을 버리고 성결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에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며 목자의 눈물과 희생에 보답하는 보상의 열매로 나오고자 힘썼고, 그 결과 2014년에는 영의 평준화를 이룰 수 있었다.

특히 성도들을 위해 목자가 공의를 대신한 지 만 6년이 되는 2016년에는 더욱 급속한 온 영의 흐름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이 믿음의 반석으로 들어오고 영으로, 준 온 영으로 나오는 축복이 넘쳤다. 올해는 목자와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욱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 어느 해보다 더욱 뜻깊은 성탄절이 되었다.



2 말씀과 권능을 사모하는 총회장 및 목회자들의 방문

올해도 GCN방송과 신앙서적, 권능의 손수건 집회와 목회자 세미나 등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에 대해 알게 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응답과 치료뿐 아니라 교회의 부흥과 축복, 변화된 삶을 체험하며 세계 곳곳에서 성결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사모하게 된 것이다.

지난 5월에는 필리핀 목회자들이 방문하였고, 8월에는 러시아와 파키스탄에서 총회장들이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여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였으며, 10월에는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아 이집트, 케냐,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총회장들이 방문하여 성결의 복음과 참된 목회 사역에 대해 배우며 확신을 얻고 돌아갔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14)

잊지 못할 은혜

받아 결국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별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신분도 '전과자'에서 문벌 좋은 가문의 후손으로 격상되었지요. 예전의 범죄 기록도 깨끗이 사라져 그것을 빌미로 해코지하려는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만 새롭게 하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사면을 받게 된 것은 한 사람의 희생의 대가로 된 일이었습니다. 한 독지가가 그 사람을 위해 대신 모든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고, 그 결과 우리는 영생을 얻었지요. 또한 죄인의 신분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신분 상승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천국에 상급으로 쌓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최소한 '누르고 흔들여 넘치도록' 받으며 30배, 60배, 100배까지 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하려 함이라” 약속하셨습니다(요 14:13).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잊지 못할 두 번째 은혜는 '죄 사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현저한 육체의 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 등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갈 5:19-21). 하지만 철저히 통회자복 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지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죄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욱보이는 것과 같은 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짓는 죄, 성령 훼방·거역·모독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맞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히 6:5-6).

또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마 12:32).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죽은 뒤에는 아랫음부 3단계 또는 4단계의 형벌을 받지요. 백보좌대심판 후에는 불못보다 칠 배나 더 뜨거운 유향못에 던져집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더라도 이러한 죄를 짓지요.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대신 속죄하며 “어떤 방법이라도 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능히 하겠사오니 길을 여소서.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기에 감히 이들의 죄를 고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나이다.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의의 값을 치르는 엄청난 희생과 몸부림치는 사랑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절대 사하심이 없는 죄도 사해주심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지요.

3. 우리가 잊지 못할 세 번째 은혜는 '변화'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죄사함의 큰 은혜를 받은 후 성도들이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주의 종, 장로, 권사인데, 나는 큰 조직의 머리인데.' 이런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지요. 이로써 참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목자를 통해 근본의 빛과 소리가 퍼져나감으로 성도들은 '영, 온 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결심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영에 접근할 수 있는 흐름을 많은 성도가 함께 타게 되었지요.

사실 성격을 고치거나, 의의 틀과 선의 틀을 깨뜨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까지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더 많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끌어내리기까지는 목자의 희생과 사랑이 바탕이 되었으며, 이는 성도들이 자유의지를 꺾고 변화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지요.

그 결과 많은 성도가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 온 영으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흐뭇하시실 만한 열매로 드러났습니다. 이 영광의 열매들이 목자를 중심으로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제3도약기의 본격적인 사역을 함께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고 경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이 제단을 통해 그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통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 온전한 영광의 열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참으로 영광스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잇을 수도 없고 잇어서도 안 되는 큰 은혜와 축복의 날을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도록 많은 기회와 은혜, 능력을 주시지요.

1. 우리가 잊지 못할 첫 번째 은혜는 '주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십자가의 도가 이뤄질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맺혀질 열매가 무수히 많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죄의 담이 헐리고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를 비유로 말씀드리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대가로 무기징역을 선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NRB와 FEB 참가 등 GCN방송 선교

3

GCN방송(www.gcntv.org)은 올해도 전 세계 기독교방송인들과 활발히 교류 및 협력하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방송 선교의 지경을 넓혀 갔다.

지난 2월, '2016 NRB(세계기독교방송인협회) 총회 및 박람회'에 참가하여 기독교방송인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방송 기술을 교환하였으며, GCN방송 부스를 방문한 NRB 회장을 비롯한 NRB 지도부 인사들과 교제를 나눴다. 11월에는 유럽, 북미, 호주, 아시아 등 18개국에서 함께한 '2016 FEB(유럽기독교방송인협회) 콘퍼런스'에 참가하여 GCN방송 사역을 알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있다.

순수기독교방송인 GCN방송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해외 170여 개국에 송출하고 있으며, 변화와 생명을 체험한 시청자들의 간증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변화시킨 목자의 사랑

4

진실한 사랑은 사춘기 학생들의 마음도 녹였다. 지난 5월 7일과 14일, 당 회장 이재록 목사는 우리 교회 및 전국 지교회 학생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을 산상기도처에 초대하여 천국 소망을 안겨 주었다. 주 안에서 영적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맛있는 음식과 운동 경기, '빛의 축제' 관람, 기념촬영 등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행복을 느끼며 하나님의 참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연 것이다. 학생들은 이날의 행복을 통해 컴퓨터 게임 등 세상 오락을 끊고 학업에 더욱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하는 등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과학으로 입증한 WCDN

5

지난 6월 10~11일,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이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제13회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33개국에서 의사 및 의학계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찬양과 경배, 치료사례 발표, 특강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초교과 기독교의사들의 모임 WCDN(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은 미국, 노르웨이, 호주, 케냐,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매년 전 세계 각처에서 '영성과 의학' 콘퍼런스를 통해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각종 의학 자료로 입증해 왔으며, 세계 기독교의사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지막 때 지식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10주 연속 종교부문 종합 주간 베스트셀러 기록

6

『하나님의 밭 아브라함』에 이어 올해 발간된 이재록 목사의 성경인물 시리즈가 베스트셀러에 올라 화제가 되었다. 지난 4월,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밭 아브라함의 자손아』가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 8주 연속 종교부문 종합 주간 베스트셀러에, 10월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은 종교부문 종합 주간과 월간 베스트셀러 1위에 각각 오른 뒤 10주 연속으로 베스트셀러에 기록되었다.

성령의 감동함 속에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매우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이 책들은 영과 온 영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기폭제가 되었다.



하나님 마음의 정수(精髓), '사랑의 깊이'를 배우다

7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2011년부터 기관장 교육과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을 통해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주옥같은 말씀들을 공급해 주셨다. 그 가운데 올해에는 '사랑의 깊이(롬 13:10)'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지난 7월, 해외 20개국에서 참석한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에서 강사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 마음의 정수(精髓)인 '사랑의 깊이'에 대해 용서의 단계, 살리는 단계, 참음의 단계, 믿어주는 단계, 바라봐주는 단계, 기다려주는 단계, 눈물을 흘리는 단계 총 일곱 단계로 나눠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온 영의 차원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며 큰 능력이 되었다.



새 예루살렘의 감동 선사한 창립 34주년 축하공연 '영광'

8

본격적인 제3도약기가 시작된 2016년에 맞은 교회 창립 34주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행복을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지난 10월 7일과 9일, 기독교화를 선도하는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에서 주최한 창립 전야행사와 본행사가 '영광'이라는 주제로 공연된 것이다.

공중 혼인 잔치의 영광스러운 감동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성도들의 기쁨과 설렘이 예능팀의 아름다운 찬양과 무용, 분당 좌우 벽면과 천정, 무대를 스크린 삼아 그려지는 260도 맵핑 영상과 닥시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로 표현되어 천국 소망이 더해지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9

폭발 폭발 폭발, 대폭발로 펼쳐진 재창조의 권능!

지난 8월 8~11일, 전 세계 곳곳에서 참석하는 글로벌 축제 '만민 하계수련회'가 해외 30개국에서 참석하고 GCN방송으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첫날 교육 후 은사집회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단에서 환자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폐암, 후두암, 직장암 등 각종 암을 비롯한 갖가지 질병이 치유되고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보행장애 등 연약함을 고침받는 재창조의 권능이 대폭발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무수한 사람이 실명 및 시각장애를 비롯 백내장, 녹내장, 각막염 등 눈에 관련된 질병들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10월 7일, 허리케인 매튜는 3등급으로 미국에 상륙한 후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여러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글리스 박사를 통해 기도 요청을 해왔다. 이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7일 9시경 기도해 주었고, 그 뒤 매튜의 세력이 1등급으로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이후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되었다.

10

기온 조절을 통한 최적의 날씨로 하나님께 영광!

지난 5월 중순, 84년 만의 무더위가 계속됐으나 1만여 명이 모이는 교회 행사가 있던 26일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낮 기온이 24.4도로 쾌적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8월 8일, 만민 하계수련회 첫날 교육이 시작 되는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 점핑파크의 온도는 24도를 나타냈다(사진). 9일 국민안전처에서는 전라남북도의 폭염경보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지만 체육대회가 열린 점핑파크에는 시원한 천상의 바람이 불었고 구름으로 해를 가려 이후의 일정도 시원한 날씨 가운데 진행되었다.

10월 9일 창립 기념 주일, 일기예보는 낮 최고기온을 17도로 예상했지만 교회 앞마당 기온은 야외 행사에 적합한 23.7도까지 올랐고, 상탄 점등식이 있던 12월 16일에는 영하 9~10도의 강추위가 예보됐으나 영상 1도로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한 날씨 속에 진행됐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행사 때마다 최적의 기온과 날씨로 기사를 베풀어 주셨다.



11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전한 해외 26개국 선교 출장

전 세계 1만 1천여 지·협력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미국, 일본, 필리핀, 파키스탄, 이스라엘,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페루, 콜롬비아, 러시아, 이집트,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라트비아, 콩고민주공화국, 태국, 네팔, 인도, 홍콩, 네덜란드, 케냐,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우간다 총 26개

국 선교 출장이 있었다. 이에 5대양 6대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문둥병, 에이즈 등 온갖 질병이 치유되고 시력·청력이 회복되며 악한 영에서 놓임받는 등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힌두교도와 회교도들이 개종하고 무수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12

아프리카 선교의 풍성한 열매 5,600여 지·협력교회

세계적인 부흥강사 이재록 목사는 2000년부터 우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연합대성회를 통해 따르는 표적으로 성결의 복음을 전파한 후,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54개국 선교에 힘써 왔다.

특히 올해는 콩고민주공화국 베사이다 교단 산하 561개 교회와 만민국제신학교에서 성결의 복음을 배우던 목회자들의 288개 교회, 케냐의 전도소식 교단의 65개 교회 총 914개 교회가 자협력교회로 가입함으로써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풍성한 결실로 맺히는 축복을 받았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남포항만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46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사산만민교회 충남 사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안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강원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2208-571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76-101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이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